

Hans-Jörg Ronsdorf

십자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쉽게.  
분명하게.



# 예수는 왜 죽어야 했는가?

# 예수는 왜 죽어야 했는가?

십자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Hans-Jörg Ronsdorf

초판 2026년 10월, 줄츠베르크(Sulzberg)

모든 권리 보유

표지 디자인: 크리스티네 론스도르프(Christine Ronsdorf)

성경 말씀은 자유롭게 옮김

주문, 문의, 연락: [hj-ronsdorf@t-online.de](mailto:hj-ronsdorf@t-online.de)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8

이 작은 책은 단 하나의 질문을 따라갑니다. 이천 년 전 한 사람의 죽음이 왜  
오늘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일까요? 이 책은 교회와 별로 관계가 없는  
독자들을 위해 썼습니다. 한 걸음씩, 쉬운 말로.

# 차례

|                              |    |
|------------------------------|----|
| 1 간단한 질문 .....               | 6  |
| 2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    | 8  |
| 3 하나님은 실제로 어떤 분이신가 .....     | 11 |
| 4 왜 피인가? .....               | 14 |
| 5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 .....        | 17 |
| 6 어려운 세 문장 .....             | 20 |
| 7 그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 | 23 |
| 8 부활절이 왜 함께 있어야 하는가 .....    | 27 |
| 9 좋은 소식 .....                | 30 |

## 1 간단한 질문

이천 년 전에 한 사람이 처형되었습니다. 도시 밖, 성벽 앞에서였습니다. 나무 기둥,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였습니다. 폭력에 익숙한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였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수천 명을 죽였고,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무의미한 죽음들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까지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하나의 죽음이 무엇이 달라야 한다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구할 길이 없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말합니다.

예방 접종이 없던 옛날에는 아이들이 디프테리아로 숨이 막혀 죽었습니다. 끈적한 막이 목에 자라나 목을 막아 버렸습니다. 때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의사가 가는 관을 넣고, 자기 입으로 그 막을 빨아냈습니다. 아이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이제 그 병을 자기 안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죽은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 의사는 그저 도와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죽이던 것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병은 아이에게서 나와 의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여기서 질문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는 우리를 무엇에서 구하신 것일까요? 이 그림을 우리에게 옮겨 보면, 병은 무엇이었고 어디에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병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살고, 일하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병이라니요? 어디예요? 설령 병이 있다 해도, 왜 이천 년 전 한

사람의 죽음이 그 병을 고친다는 것일까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순진한 질문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작은 책에서 오직 이 한 가지 질문에 답하려고 애써 볼 뿐입니다. 한 걸음씩. 먼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을까요? 그다음, 그것을 우리에게서 가져가는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다음,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와닿을까요?

첫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책을 자기 몸에 지시고 저기 나무, 곧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썼습니다.<sup>1</sup>

이 문장에서 세 단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지다. 몸. 나음.

이 세 단어가 앞으로 우리를 조금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

1. 베드로전서 2:24

## 2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저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누가 자기를 낳을지, 어디에서 태어날지 고를 수 없었습니다. 삶이 우리를 어떤 형편에 던져 넣을지는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대개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1장의 아이처럼 몸의 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병, 그리고 그 병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허함, 무의미함, 죄책감, 깨어짐, 막다른 골목, 매임, 절망. 이런 것은 아무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멈추어 서는 사람은 이런저런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느낌은 흔히 조용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잠들 수 없는 밤에. 무덤 앞에서. 또는 어떤 사람이 더 이상 여러분과 말하지 않을 때. 그때 밀어낼 수 없는 무언가가 거기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더 이상 바로잡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미 내뱉은 말. 황달혀 버린 문. 화해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자신은 결코 잊지 못하는 속임수.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잘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과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손해를 갚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너무 늦게 옵니다. 사과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 닿지 않습니다. 손해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짐은 다음번까지만 갑니다.

설령 모든 것이 잘된다 해도, 무언가는 남습니다.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배상도 그 일을 없던 일로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인간만 바라보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만든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자연법칙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책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칙이나 조건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규칙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은 치명적인 병에 비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가리키는 짧은 말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라는 말은 닳아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에서 도덕 설교와 치켜든 집게손가락만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삶에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성경이 쓰는 이 단어는 글자 그대로 과녁을 빗나간다는 뜻입니다. 빗나가는 화살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 둘은 함께 갑니다. 죄는 행위를 뜻합니다. 행위는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그런 행위가 나오는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을 뜻합니다. 그것은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것을 압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먹고는, 다른 것을 합니다. 마치 우리를 몰아가는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안에서요, 그리고 밖에서도.

이제 듣기 힘든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저에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sup>2</sup> 곧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게 되는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무도 탓하지 않고, 아무도 고발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일은 언젠가 끝납니다. 차라리 멈추어 서서 정직해지는 편이 낫습니다. 매임, 공허함, 무의미함, 죄책, 외로움, 깨어짐, 폭력, 잘못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열과 같습니다. 그러나 열은

---

2. 로마서 3:23

병 자체가 아닙니다. 열은 병이 있다는 것,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뒤에 병이 숨어 있습니다. 병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히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계는 없습니다. 죄책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있거나 내 밖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책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삶 안에, 내 이야기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어떤 철학자는 우리의 양심을 법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안에는 세 목소리가 있습니다. 고발하는 사람, 변호하는 사람, 그리고 재판관입니다. 셋 모두 우리 안에서 말합니다. 고발하는 사람은 우리가 한 일을 낱알이 열거합니다. 변호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법정은 누가 설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지니고 다닙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한다면, 그것은 친절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을 없던 일로 만들지도 못합니다. 어떤 의사도 “별로 심하지 않아”라고 말해서 아이를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것이 밖으로 나와서 끝나는 것. 하나만 있고 다른 하나가 없으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3 하나님은 실제로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없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오해를 짚겠습니다.

거의 누구나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흔히 엄격한 감시자의 그림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아무것도 잊지 않는 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릴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것을 예수의 십자가에 옮기면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벌을 원하신다. 예수께서 그 사이에 몸을 던지셔서, 벌이 우리가 아니라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아들이 진노한 아버지를 달랬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를 보고 나서야 친절해지는 하나님을 누가 신뢰하고 싶겠습니까?

그 말에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무것도 그냥 지워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맞지 않습니다. 이 그림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일그러진 그림입니다. 적어도 지나치게 줄여 버린 그림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전혀 다른 분이시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누가 첫걸음을 내딛는지 살펴봅시다. 그것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버린 아담을 동산에서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단 하나의 계명을 주시기도 전에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억지로 받아 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1장의 의사가 돕고 싶어서 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 그를 설득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로써 하나님께 저지른 일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다시 우리에게서 시작해 봅시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심한 상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에게 양갓음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손해를 상대방에게 되돌려 주는 대신 여러분 자신이 진다는 뜻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값을 치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것이 용서의 값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르는 것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들 사이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성경의 첫 부분인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지우는 자니라.<sup>4</sup>

두 가지가 나란히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수고롭게 합니다. 그분은 그것을 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지우십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노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짐을 그분께 지워 드렸다는 것을 깨닫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 짐을 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못 본 척 넘어가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무관심할 것입니다. 아이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누군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을. 내가 저지른 불의를, 내가 당한 불의만큼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

3. 요한복음 3:16

4. 이사야 43:24-25

문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시고 견디시는 일에서 의로우신가, 공평하시고 일관되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계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로 - 우리의 죄로 - 생긴 손해가 언젠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sup>5</sup>

이 모든 것이 함께 우리를 십자가로 이끕니다. 엄격하기만 한 하나님이라면 십자가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냥 벌하고 갚아 주면 될 것입니다. 너그럽기만 한 하나님이라도 십자가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못 본 척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비극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 다이십니다. 그분은 죄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죄지은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둘 다 참으로 남는 길을 가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의롭고 거룩한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길입니다.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

5. 로마서 3:25-26

## 4 왜 피인가?

십자가는 피투성이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를 비켜 갈 수 없습니다. 낮설게 들리더라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낮설게 들립니다.

일상에서 피를 보는 일은 드뭅니다. 다쳤을 때, 의사가 피를 뽑을 때, 아니면 헌혈할 때. 거기서 우리는 평소에 쉽게 잊는 것을 배웁니다. 피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피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어쩌면 예수의 피에 관한 찬송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아해할 것입니다. 아니면 꺼림칙해할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피 없이는 안 될까요? 왜 용서의 말 한마디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다시 우리에게서 시작해 봅시다. 어린 남자아이가 어머니의 하얀 식탁보에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어머니가 들어와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이를 용서합니다. 곧바로, 아무 꾸중도 없이. 그래도 식탁보는 여전히 알록달록합니다. 용서가 식탁보를 깨끗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누군가 그것을 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빠는 사람은 그 아이가 아닙니다.

이것이 용서와 정결하게 함의 차이입니다. 용서는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네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정결하게 함은 말합니다. 그것은 없어졌다.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합니다. 2장에서 우리는 죄가 병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해 주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쳐 주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보다 훨씬 전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언어로 가르치셨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나 그 언어를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의 언어입니다.

죄책을 짊어진 이스라엘 사람은 짐승 한 마리를 성소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신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짐승이 이제 나를 대신한다. 그다음 짐승을

잡았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제단으로 가져갔습니다. 피가 핵심이었습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두게 하였으니, 너희를 덮게 하려 함이니라.<sup>6</sup>

이 문장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주십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아 내듯이 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약을 주듯이 피를 주십니다. 그리고 피가 하는 일은 “덮는다”는 것입니다. 피는 죄책 위를 덮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책을 없앱니다.

이 낯선 언어는 무엇을 말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죄책은 심각합니다.

죄책은 생명 하나를 대가로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양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죽는지 알지 못합니다. 양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떠맡을 수 없습니다. 성경 스스로 짐승의 피는 죄책을 없앨 수 없다고 말합니다.<sup>7</sup> 그것은 일종의 수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언젠가 실제로 하실 일을 미리 알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짐승으로가 아닙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한 사람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그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남의 피를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책은 생명 하나를 대가로 치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

6. 레위기 17:11

7. 히브리서 10:4

자기 자신의 생명이어야 한다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 일에서 완전히 하나입니다.

## 5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그러면 예수 자신은 어땠을까요? 그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아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일찍 죽으면, 남은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그가 짐작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야 이해하는 어떤 말을 했던 것은 아닐까? 때로는 편지 한 통이 발견됩니다. 아니면 그때는 무심코 흘려들었던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예수의 경우에는 다른 의심이 들기 쉽습니다. 그의 죽음에 의미가 나중에야 덧붙여졌다는 것입니다. 한 설교자가 너무 멀리 나갔다. 권력자들이 그를 치위 버렸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그 뒤에 무의미한 죽음에서 의미를 찾았다. 그런 일은 있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록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죽음이 오기 전에 그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바로 구원하는 의미를 친히 부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 번이나 친구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 한다고.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는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한번은 자기 자신을 의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움받는 세리들과 평판이 나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sup>8</sup>

그는 자기가 누구에게 왔는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왔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sup>9</sup>

---

8. 마가복음 2:17

9. 마가복음 10:45

인자,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대속물, 그것은 포로를 값을 치르고 풀어 주는 돈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종살이에서. 빛에 묶인 삶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이 그 값이다. 그리고 너희가 자유롭게 되는 사람들이다.

마지막 저녁에 그는 친구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절기에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이집트에서 해방된 일을 기억합니다. 그는 빵을 들어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는 포도주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다.<sup>10</sup>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해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으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죽는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죽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다음 감람산 기슭 겿세마네 동산에서의 밤이 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것이 그에게 무엇을 대가로 요구했는지 봅니다. 그는 친구 셋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자기가 죽을 만큼 괴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sup>11</sup>

잔은 오래된 그림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잔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에 마시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몫입니다. 그의 운명입니다. 때로는 복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에게 지워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잔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셨습니다. 그 잔이 자기를 비켜 가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죽음 속으로 비틀거리며 빠져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엇이 올지 보셨습니다. 면하게 해 달라고 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셨습니다. 이것은 7장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

10. 누가복음 22:19; 마태복음 26:28

11. 마가복음 14:34-36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그는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단 한 단어입니다. 독일어로는 세 단어가 필요합니다(Es ist vollbracht). 우리말로 “다 이루었다”입니다.<sup>12</sup> 이것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냈다”는 뜻입니다. 맡은 일이 완수되었다는 뜻입니다.

---

12. 요한복음 19:30

## 6 어려운 세 문장

이제 어려워집니다.

천천히 읽어야 하는 세 문장입니다.

두 번 읽어야 하는 문장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의사의 검사 결과. 관청에서 온 편지. 읽고, 내려놓고, 다시 읽습니다. 많은 것이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죽음을 몇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그 가운데 셋이 특히 어렵습니다. 많은 것을 담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쉽게 잘못 이해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첫째 문장: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sup>13</sup>

이것은 우리가 가진 십자가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장입니다. 바울은 주후 55년 무렵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장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 문장을 자기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서 전해 받았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십자가 사건 뒤 처음 몇 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몇 세대 뒤에 누군가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의 원수들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입니다. 그의 죽음은 2장에서 말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병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바로잡을 수 없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곧 이것이 이미 이스라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새로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경에서 다시 발견했습니다. 가장 분명하게는 이미 수백 년 된 한 노래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노래는 멸시받고, 고난받고, 죽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

13. 고린도전서 15:3

그는 우리의 병을 짊어졌도다.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sup>14</sup>

여기 쓰인 단어는 정말로 “병”을 뜻합니다. 그것은 “죄의 병”입니다.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것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한 사람을 봅니다. 아이의 침대 곁에 선 의사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성경의 해방 이야기들은 앞으로 올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거기서 한 민족에게 일어난 일이 여기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일어납니다.

**둘째 문장: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sup>15</sup>

이것은 셋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장입니다. 한 부분씩 읽어야 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죄책이 없었고, 그는 결코 불의와 한패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를 우리라는 존재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죄인으로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을 그에게 온전히 넘겨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기서 의는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혔다는 뜻입니다. 다시 그분께 속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환입니다. 그는 우리의 것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낯선 두 사람이 무언가를 주고받는 시장의 거래 같은 교환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환입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 안으로. 그리고 그의 부활 생명 안으로.

바울은 한번 친구에게 짧은 편지를 씁니다. 그 친구에게서 종 하나가 도망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어쩌면 무언가를 가지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를 알게 되었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14. 이사야 53:4-6

15. 고린도후서 5:21

그가 네게 빚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달아 두어라. 내가 갚겠다.<sup>16</sup> 여기서 아무도 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나섭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셋째 문장: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sup>17</sup>

이 문장은 1장에서 이미 보셨습니다. 이 문장은 장소를 말합니다. 자기 몸에. 나무, 곧 십자가에. 생각 속에서가 아니고, 하늘 어딘가에서도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날, 어느 특정한 나무 기둥에서, 피를 흘릴 수 있는 몸으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그가 하신 일을 말합니다. “지셨다.” 여기에 제사의 언어에서 나온 그림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해마다 한 번, 큰 속죄일에 제사장은 살아 있는 숫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모든 죄책을 그 염소 위에 고백했습니다. 그다음 사람들은 그 염소를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염소는 죄책을 지고 멀리 갔습니다. 죄책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sup>18</sup>

바로 이 단어가 셋째 문장에도 있습니다. “지셨다.” 지고 멀리 가셨다. 예수는 죄책을 지고 밖으로 나가는 염소와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피로 정결하게 하는 제물입니다. 한 인격 안에 둘 다 있습니다.

이 문장은 더 이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기분이 나아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일어난 일일 뿐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통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무언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의 상처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

16. 빌레몬서 1:18-19

17. 베드로전서 2:24

18. 레위기 16:21-22

## 7 그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이제 하나의 대답이 나옵니다. 적어도 대답하려는 시도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은 묻습니다. 왜? 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대개는 대답을 얻지 못합니다. 죽음은 무의미한 채로 남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르게 묻습니다. 그가 왜 죽었는가만 묻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습니다. 이것이 1장에서 던진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다섯 걸음으로 다가가 보려 합니다.

**첫째: 그는 그것을 스스로 떠맡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고를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는지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리로 가셨습니다. 죽기 전날 밤에 그는 그 일이 자기를 비켜 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sup>19</sup>

그다음에 일어난 일은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친구의 배신.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판결. 매질, 조롱, 처형. 하늘에서 내리친 번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습니다.<sup>20</sup> 둘 다 참입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3장에서 말한 그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당하신 일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제 길을 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뿌린 씨가 싹을 틔웁니다. 거짓, 불의, 폭력, 죽음. 그것이 죄책과 죄의 열매입니다. 그는 그 열매를 자기 몸으로 거두어들였습니다. 그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열매를.

**둘째: 그것이 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지실 수 있었습니다.**

---

19. 마가복음 14:36

20. 로마서 8:32; 사도행전 2:23

여기서 1장의 의사 그림이 도움이 됩니다. 그 의사는 왜 아이에게서 병을 덜어 줄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그 병에 걸려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건강한 몸으로 밖에서 왔습니다. 자기 자신이 숨 막혀 가는 의사는 어떤 아이에게도 숨을 틔워 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는 자기 자신의 죄책이 없었습니다. 거두어들여야 할 말도 없었습니다. 황 달아 버린 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죄책을 지실 수 있었습니다. 의인이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sup>21</sup> 그는 지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책을 넘겨받으십니다. 그는 온전히 죄인들의 편에서십니다.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그것은 그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셋째: 그는 그것을 자기 죽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것은 죽음이어야 했을까요?

2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있거나 내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죄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삶 안에. 한 삶 안에 자리 잡은 죄, 이 치명적인 병은 그 삶이 끝날 때에야 비로소 끝납니다. 그래서 죄는 청구서처럼 그냥 면제해 줄 수 없습니다. 청구서는 찢어 버릴 수 있습니다. 삶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기 삶 안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의사가 아이의 병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죄책과 우리의 병도 함께, 그것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갔습니다. 솟염소가 죄를 광야로, 죽음의 땅으로 지고 간 것처럼 말입니다. 죄는 거기 남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런 강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육신에 죄를 정하셨느니라(그리고 심판하셨느니라).<sup>22</sup>

아들을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죄는 그가 그것을 지고 간 그 자리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3장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21. 베드로전서 3:18

22. 로마서 8:3

그리고 죄인을 구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그러면 피는요? 성경에서 피는 내주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잔인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피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죄의 값이요 결과는 죽음입니다. 생명의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계속되는 죽음에서 구하시려는 것입니다.

**넷째: 죽음은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의사의 그림은 끝납니다. 의사는 그 병으로 죽었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신은 완전히 선하고 의로우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가 끝나는 죽음은 그를 붙잡아 둘 권리도 이유도 없습니다. 사흘 뒤에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아름다운 본보기일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그것은 구원입니다. 다음 장이 이것을 다룹니다.

**다섯째: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이것을 나의 일로 만드는 걸음입니다. 성경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sup>23</sup> 이것은 경건한 말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의 죽음 속에서 끝난 것은 나의 병들고 죄 많은 존재였습니다. 예전의 나라는 사람이 거기 십자가에서 죽었고 함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에서 나온 것은 내가 되어야 할 모습의 시작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습니다.<sup>24</sup>

그래서 이 죽음에는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작은 말이 하나 따라옵니다. “함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만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입니다. 그를 붙드는 사람은 함께 데려가집니다. 죄책과 죄가 남아 있는 그의 죽음 속으로. 그리고 죄가 더 이상 없는 그의 생명 속으로 이끌려 나옵니다.

이천 년 전의 한 사건 속에서 이런 연결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며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23. 로마서 6:4; 고린도후서 5:14

24. 고린도후서 5:17

**이것이 뜻하는 바.**

여러분이 더 이상 바로잡을 수 없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 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없던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멀리 옮겨졌습니다. 그것을 지실 수 있는 분에 의해,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곳으로.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더 이상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와 함께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진리 위에 서도 됩니다.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 생명이 어떻게 다른 생명들을 죽음을 통과하여 함께 데려갈 수 있는지, 그것은 신비로 남습니다. 그것이 예수께 가장 깊은 곳에서 무엇을 뜻했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날짜와 장소와 빈 무덤이 있는 신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 8 부활절이 왜 함께 있어야 하는가

금요일에 그는 죽었습니다.

일요일에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서 본 사람은 그 느낌을 압니다. 여기서 무언가가 끝났습니다. 완전히. 꽃을 가져다 놓고 촛불을 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은 죽음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금요일에 끝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선한 사람 하나가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다음 차례가 될까 두려워 숨어 있습니다. 그의 무덤은 무거운 돌로 막혔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감동적인 본보기 하나가 남았을 것입니다. 자기 신념을 위해 죽은 사람.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처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한 사람. 그를 존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를 본받으려고 애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1장에 나온 의사와 같았을 것입니다. 병을 자기 몸으로 받아들였고, 그 병이 그를 죽였습니다.

바울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가 아직 너희 죄 가운데 있으리라.<sup>25</sup>

아직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덤은 죄책이 머물러 버린 곳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그도 머물러 버린 곳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 쓰인 모든 것은 헛것이 됩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주장합니다. 그가 죽은 채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여자들이 그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친구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

25. 고린도전서 15:17

유령으로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그 상처를 만져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에 대해 적어도 세 가지를 뜻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라고 하셨습니다. 금요일에 일어난 일에 대해 “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다면,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수습하신 불행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이 바로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래된 한 문장이 이 둘을 한숨에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쫓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도록 다시 살아나셨습니다.<sup>26</sup> 죽음은 죄책을 없앱니다. 부활은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유효하다고.

**둘째:** 죄책은 무덤에 남았습니다. 그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책이 더 이상 없다는 표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면, 죽음이 그를 붙잡아 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잠깐 쉼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책은 무덤에 남았다”는 말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죄책은 처리되었고, 치워졌고, 더 이상 없습니다.

**셋째:** 그는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여기 계십니다. 오늘. 영원히. 그는 사람의 몸,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디프테리아 이야기에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치료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말의 피에서 얻었습니다. 말들에게 그 병의 독을 처음에는 조금, 그다음에는 더 많이 주었습니다. 말들은 그것을 이겨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 속에 아이들을 살려 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비유는 어딘가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 비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보여 줍니다. 병을 앓고 이겨 낸 이의 생명은 다른 사람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병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셨고 죽음을

---

26. 로마서 4:25

이기셨습니다. 이제 그의 생명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sup>27</sup>

악은 아직 있습니다. 병도, 그리고 죽음도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제는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들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

27. 로마서 5:10

## 9 좋은 소식

그러면 나는?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책을 여기까지 읽으셨습니다. 어쩌면 호기심을 가지고, 어쩌면 의심을 품고, 어쩌면 둘 다를 가지고. 이것이 1장에서 던진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나에게 와닿는가? 한 사람이 이천 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구경만 하는 동안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께 나를 맡기는 순간, 모든 것이 상관이 있습니다.

중병에 걸린 동시에 고소를 당해 법정에서 있는 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무죄 판결과 건강입니다. 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는 있지만, 그는 여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그를 고칠 수는 있지만, 그는 여전히 고소당한 채입니다. 그에게는 둘 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2장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병이 끝나야 합니다. 십자가,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이 둘을 다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병상 곁으로 다가오는 의사처럼 주십니다.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병든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장에 나온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가만히 있으면서 의사가 하는 대로 맡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의사에게 맡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닳아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에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사실로 여긴다는 뜻을 듣습니다. 그러나 뜻하는 바는 다른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는 분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이것만 알면 됩니다.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곁에 가까이 오시게 해야 합니다.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 문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느니라.<sup>28</sup>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무죄 판결입니다. 그리고 화평입니다. 상대가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서로 지켜보며 기다리는 휴전이 아닙니다. 화평입니다. 그 일은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해결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것을 자기 몸에 지고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함께 따릅니다. 이것은 압박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돌이키기.** 이것은 먼저 착해진 다음에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고치려는 시도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그것을 옛날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세례받기.** 세례는 온몸으로 일어나는 표징입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sup>29</sup> 예전의 나라는 사람은 죄책이 남아 있는 그곳에 눕혀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사람은 살아 계신 분께 속합니다. 세례로 우리는 새로운 주, 곧 왕이신 예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속하기.** 아무도 이 길을 혼자 가지 않습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은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에 속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입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제 여러분은

28. 로마서 5:1

29. 로마서 6:4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로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책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 몸에 지고 자기 죽음 속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그 안으로 함께 데려가셨고, 함께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바로잡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신 지신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소식은 참되다고. 그리고 이 소식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천 년 전, 한 사람이 처형됩니다. 나중에 그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책은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이 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표지 이상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출구입니다.**

**정말로 알고 싶은 모든 분을 위하여.**